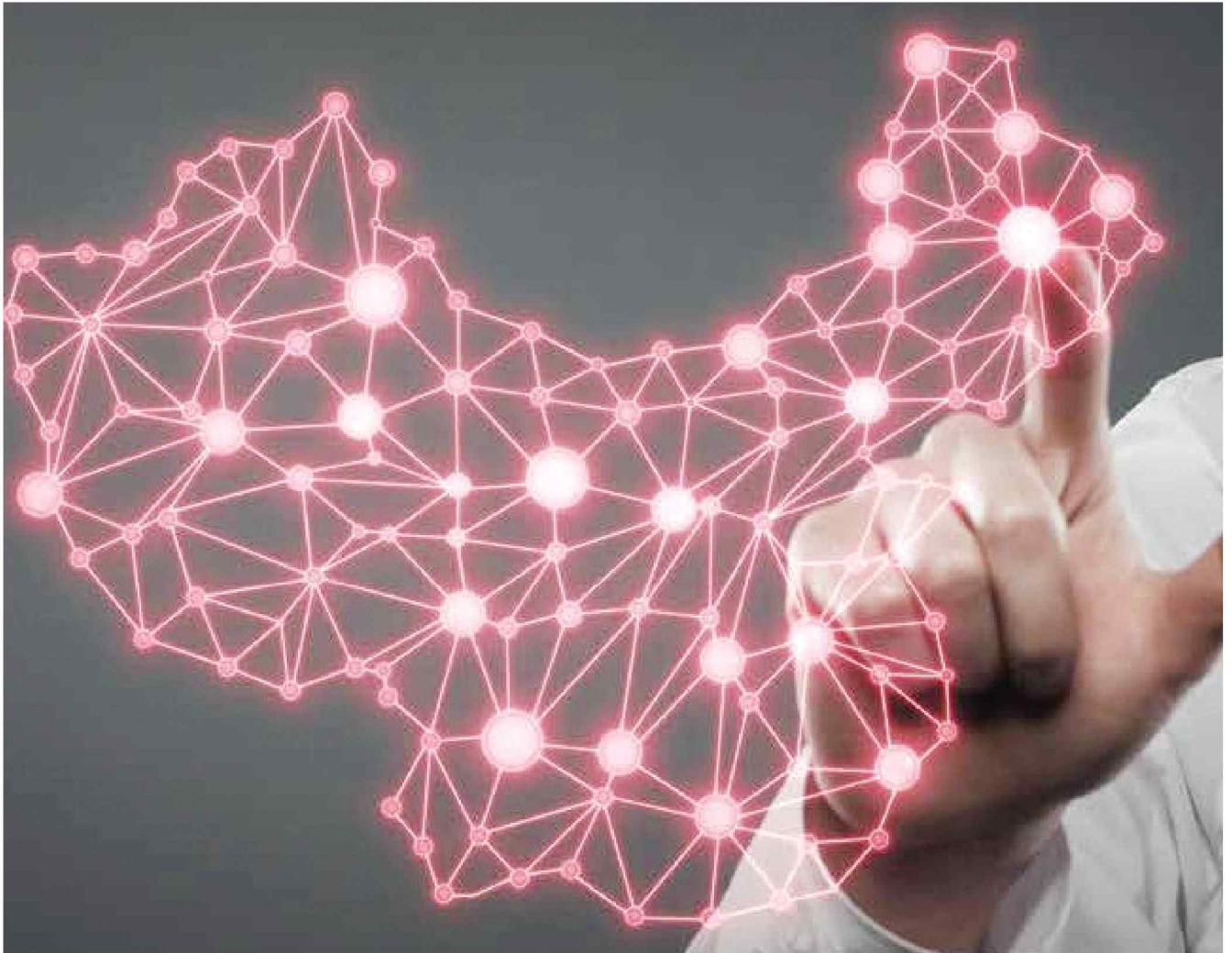


충청중국포럼

# 중국동향과 진단

No.2

2015.07



## Contents

### 02 중국 동향과 진단

- ‘신상태(新常态)시대’ 중국경제와 충남의 대응과제

### 22 허베이-산둥통신

- 허베이통신[교통 · 인프라, 산업클러스터]
- 산둥통신[교통 · 인프라, 산업클러스터]

### 38 충청중국포럼소식

- 제2회 충청중국포럼 월례세미나  
‘뉴노멀 중국경제와 충남경제의 비전’ 개최

# ‘신상태(新常态)’시대 중국경제와 충남의 대응과제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중국연구팀

소위 ‘신상태’(新常态: New Normal)’란, 중국정부가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 수용하면서, 이제까지의 양적 성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온 발전방식을 혁신과 창신(創新)을 통한 질적 발전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 하겠다. 이에 따라 향후 ‘신상태’ 중국경제는 민간소비와 내수시장의 비중은 커지고, 가공무역과 중간재 수입 비중은 축소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소비재와 서비스상품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변화는 중간재와 자본재의 대(對)중국 수출 의존도가 큰 충남경제에 변화와 도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중국정부의 ‘신상태’ 경제정책의 추진배경과 동향, 그리고 허베이성과 산둥성을 대상으로 성급 지방에서 ‘신상태’ 대응동향 사례를 살펴보고, 이 같은 중국의 ‘신상태’동향이 충남경제에 미칠 영향과 충남도에 요구되는 ‘신상태’ 대응전략을 정리했다.

## 중국동향과 진단

‘신상태’ 시대의  
중국경제와  
충남의  
대응과제

### 1. 중국정부의 ‘신상태’ 경제정책의 배경과 방향

- ‘상태(常态)’란 정상적인 상태 또는 틀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상태(新常态)’란 ‘새로운 상태’ 또는 ‘새로운 틀’을 가리킨다. 즉, ‘신상태’란 최근에 중국의 GDP 성장률이 2012년 7%대에 진입한 이래 2013년 7.7%, 2014년 7.4%로 7%대에서 맴돌면서, 중국경제가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간 지속해 온 두 자리 수 고속성장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새로운 상태(新常态: New Normal)’에 진입한 현실을 수용한 ‘새로운 틀’이라 할 수 있다.
- 최근에 중국정부는 ‘신상태’의 핵심과제로, 이제까지 투자 및 수출 중심으로, 혁신과 창신(創新) 추진을 통한 경제구조의 특화 및 승급(升级)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즉, 저가 노동력을 제공해 온 인구혜택이 갈수록 고갈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면서, 경제정책 기조를 이제까지의 고속성장 상태에서 중저속(中低速)의 ‘신상태(新常态)’로 기어변속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다.

## 중국동향과 진단

‘신상태’ 시대의  
중국경제와  
충남의  
대응과제

- 한편으로, 중국 국내에서 이제까지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중서부 내륙 지구와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각 국을 연결하면서 신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한 것이다.
- ‘신상태’란 용어가 공식적으로 등장한 때는 2014년 5월 시진핑(习近平) 주석이 허난성(河南省) 시찰에서, “신상태(新常态)에 적응해야 하고, 전략상의 정상심리상태(平常心态)를 견지해야 한다.”라 발언하면서 부터였고, 이어서 그해 12월에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이 ‘신상태’에 진입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 － 시진핑(习近平)의 말에 근거해 소위 ‘신상태(新常态)’의 특징을 요약하면, 성장속도는 고속에서 중저속(中低速)으로 전환하고, 경제구조는 부단히 특화 및 승급시키고, 동력(动力) 측면에서는 요소와 투자 위주에서 창신(創新) 위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 경제분야뿐만 아니고, 사회정비체제 창신(創新)과 법치사회 건설, 사회기풍(风尚) 창조와 인도, 그리고 조화(和谐)사회와 행복사회 건설, 문화발전 방면에도 소위 ‘신상태’의 새로운 틀을 적용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 － 중공 17차 당대회(2007.11)에서 ‘과학적 발전관’과 ‘조화사회(和諧社會)’ 목표를 확정하면서, 경제체제와 정치체제 개혁, 사회영역과 문화영역의 개혁은 종합성, 연계성(配套性), 협조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점과, 지역 간 협조발전, 도농통합발전, 자연과의 조화(和諧) 등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과 질적 발전을 강조했다. 이때부터 ‘신상태(新常态)’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새로운 틀이 형성되어 왔다고 하겠다.

- 중국정부가 밝힌 ‘신상태시대의 중저속 성장정책의 핵심내용은, 경제발전의 속도와 질(質) 간의 평형상태를 추구하면서, 혁신과 창업을 통해 새로운 발전역량을 키우겠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경제성장 추세를 안정화 시키면서, 투자구조와 성장동력을 다원화 하고, 그 과정에서 출현 가능한 각종 위협요인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 ‘신상태(新常态)’의 배경이자 주요 내용에는,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 중국정부가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발전방식 전환을 추진하면서 정책목표로 표방하고 추진해 온 ‘과학적 발전관’, ‘조화(和解)사회’, ‘신형 공업화’, ‘신형 도시화’, ‘농업 현대화’, ‘포용성 발전’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성장’의 양 보다 질을 중시하면서 신형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 현대화를 중점 추진하고, 에너지 및 자원절약과 환경보호 시책을 강화한다.
- ‘양로보험’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제고하고, ‘보장성주택’의 건설 공급량을 확대하고, ‘주택보조금 제도’의 수혜범위를 확장한다.
- 경제구조를 ‘질은 더 좋게, 구조는 더 우수하게’ 전환, 특화, 승급시키고, 경제성장에 대한 소비의 공헌율을 계속 높여 나간다. 또한 서비스업 증가치의 GDP 점유율을 2차산업보다 높이고, 장비제조업과 고급신기술 산업 발전강도를 높이고, 단위 GDP당 에너지 소모는 감소시킨다.
- 첨단기술산업 중심으로 외자유치 및 해외투자를 추진하고, 품질중심의 시장경쟁체제를 강화한다.
- 국내소비수요 동력에의 의존폭을 점진적으로 증대시키면서, 수출의존에 따른 외부 위협을 줄여 나간다.

## 중국동향과 진단

‘신상태’ 시대의  
중국경제와  
충남의  
대응과제

〈표 1〉 각 성, 시별 유형별 사회보장 정책 강화 현황

세부정책	해당지역
일자리확대 및 지원	베이징, 톈진, 허베이, 상하이, 장쑤, 저장, 푸젠, 광둥, 하이난,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안후이, 장시, 허난, 후난, 후베이, 산시(山西), 산시(陝西), 광시, 구이저우, 티벳, 닝샤, 간수, 신장, 산둥, 쓰촨, 칭하이
사회보장제도 확대	베이징, 톈진, 허베이, 상하이, 장쑤, 저장, 광둥, 랴오닝, 지린, 안후이, 장시, 후베이, 허난, 산시(山西), 충칭, 산시(陝西), 윈난, 귀이저우, 티벳, 닝샤, 간쑤, 신장, 산둥, 쓰촨, 칭하이
보장성 주택 건설 및 주택 보조금 지원	베이징, 톈진, 허베이, 상하이, 장쑤, 푸젠, 광둥, 하이난, 랴오닝, 지린, 안후이, 장시, 후난, 후베이, 산시(山西), 충칭, 산시(陝西), 광시, 구이저우, 티벳, 닝샤, 간수, 신장, 산둥, 칭하이
양로보험제도 개선	베이징, 톈진, 허베이, 상하이, 장쑤, 푸젠, 지린, 헤이룽장, 안후이, 장시, 후난, 후베이, 산시(山西), 충칭, 산시(陝西), 광시, 구이저우, 티벳, 닝샤, 간수, 신장, 산둥, 쓰촨, 칭하이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5)

## 중국동향과 진단

‘신상태’ 시대의  
중국경제와  
충남의  
대응과제

- ‘신상태’ 정책의 도입에 따른 성, 시별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구체적 추진 방안도 제시되었다. 즉, 구조개선 측면에서의 혁신역량제고, 전략산업 육성 측면에서의 IT, 환경, 신에너지 개발 및 활용 그리고 이를 위한 고급서비스업의 전문적 육성과 관광산업의 활성화 등이다.

〈표 2〉 2015 산업구조조정 계획 유형별 주요 추진 지역

유형	정책방향	지역 수	지역
혁신	산학연 협력을 통한 과학 기술의 산업화	17	베이징, 텐진, 상하이, 랴오닝, 지린, 허난, 후베이, 후난, 산둥, 충칭, 쓰촨, 네이멍구, 산시(陝西), 구이저우, 하이난, 산시(山西), 장시
	창업기금 설립 및 금융지원 등을 통한 창업 활성화	12	베이징, 텐진, 지린, 후난, 충칭, 쓰촨, 산시(陝西), 안후이, 장시, 허난, 장쑤, 푸젠
	중관촌 형태의 창업 단지 설립	15	베이징, 텐진, 헤이룽장, 지린, 저장, 푸젠, 장쑤, 후난, 구이저우, 저장, 윈난, 네이멍구, 산시(陝西), 칭하이, 안후이
	IT 기술과 제조업 간의 융합	11	베이징, 랴오닝, 허난, 후베이, 허베이, 산둥, 저장, 광둥, 산시, 안후이, 장시
전략적 신산업 육성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8	지린, 허베이, 저장, 산시, 충칭, 광시, 후난, 산둥
	차세대 IT(차세대 통신기술, 사물인터넷, 신형 디스플레이 등)	15	지린, 장시, 신장, 안후이, 하이난, 푸젠, 광둥, 저장, 쓰촨, 광시, 후난, 상하이, 허베이, 텐진, 베이징
	바이오 (바이오 의약, 농업, 제조업)	15	랴오닝, 지린, 장시, 신장, 하이난, 푸젠, 광둥, 구이저우, 충칭, 광시, 허베이, 텐진, 베이징, 허난, 상하이
	첨단제조 (항공우주, 해양플랜트)	14	랴오닝, 지린, 장시, 안후이, 산시, 광둥, 저장, 쓰촨, 충칭, 광시, 상하이, 텐진, 베이징, 장쑤
	신소재 (고성능 복합소재 등)	10	지린, 신장, 장시, 안후이, 산시, 광둥, 저장, 쓰촨, 충칭, 광시, 상하이, 텐진, 베이징, 장쑤
	신에너지 (원자력, 태양광, 풍력 등)	7	랴오닝, 장시, 산시, 푸젠, 후난, 허난, 장쑤
	신에너지 자동차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등)	8	안후이, 하이난, 광둥, 쓰촨, 충칭, 광시, 허난, 상하이
서비스업 발전	금융, 운송, 물류, 유통 (전자상거래 포함)	24	랴오닝, 광시, 허난, 후베이, 베이징, 텐진, 허베이, 산둥, 상하이, 장쑤, 광시, 충칭, 쓰촨, 저장, 광둥, 네이멍구, 산시(陝西), 간쑤, 칭하이, 푸젠, 하이난, 안후이, 구이저우, 장시
	관광	8	랴오닝, 베이징, 텐진, 허베이, 저장, 네이멍구, 간쑤, 하이난
	IT	7	광시, 허난, 베이징, 허베이, 산둥, 광시, 광둥
	서비스 산업단지	9	장쑤, 푸젠, 안후이, 광둥, 쓰촨, 네이멍구, 안후이, 장시
기타	농업 현대화	-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텐진, 산둥, 신장, 티벳, 칭하이, 안후이, 충칭, 베이징, 상하이 등
	자단지조 개선	3	산시, 헤이룽장, 랴오닝
	국제협력	4	푸젠, 헤이룽장, 텐진, 저장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5)

## 중국동향과 진단

‘신상태’ 시대의  
중국경제와  
충남의  
대응과제



## 중국동향과 진단

‘신상태’ 시대의  
중국경제와  
충남의  
대응과제

- 향후 중국의 산업정책을 포함한 중국의 정책기조 측면에서 보면, ‘신상태’란 이제까지의 성장을 중심의 양적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산업구조 고도화, 오염절감형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육성, 문화·여가산업의 육성을 통한 개인의 삶의 질 제고, 복지제도와 호구제도 개혁을 통한 개인 간 경제격차의 완화 등 질적 측면의 변화와 전환 의지를 밝혔다고 볼 수 있다.

－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산업 및 무역정책을 이제까지 주력했던 가공무역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수출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 같은 중국의 무역전략 변화는 대(對)중국 수출물량의 절반 이상이 가공무역 관련 원부자재인 우리나라와 충남지역 산업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우리나라 전국 대(對)중국 수출액이 최근 4개월 연속 감소추세를 보였다. 또한 대(對)중국 수출 5대 품목의 충남수출액의 전국 수출액 점유비중은 2000년 (19.3%)부터 2013년(76.3%)까지 급속한 증가추세를 유지해 왔으나, 2014년에는 73.7%로 전년대비 2.6% 감소했다.

－ 게다가 일본 기업들은 엔저라는 유리한 상황의 기회를 활용해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다.

## 2. 허베이성의 ‘신상태(新常态)’관련 동향

- 2014년 허베이성 최종 성장률은 6.5%를 기록했으나 구조조정과 민생개선의 질과 속도는 제고되었고, 특히 서비스업 비중과 공헌율이 상승했다. 허베이성은 이것을 신상태(新常态)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2014년 허베이성 성장률은 2013년과 2012년 대비 각각 1.7%, 3.1% 감소했으나, 반면에 서비스업 증가율은 9.7%로 전년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서비스업의 GDP 비중은 37.2%였고, 경제성장 공헌율은 52.1%에 달했다.
- 또한, 공업구조 조정 결과 장비제조업 공헌율이 제고되었고, 고신기술산업(高新技术产业) 증가치 비중이 기록을 갱신했다.

● **2014년 허베이성 장비제조업 증가치는 규모이상 공업생산액중 20.6%를 점유하면서 강철산업에 이어 지주산업(支柱产业)<sup>1)</sup> 대열에 들어섰다.**

- 2014년 허베이성 규모이상 고급신기술산업이 완성한 증가치는 1540.4억 위안(元)으로, 전년 대비 13.2% 증가했고, 규모이상 공업 평균 증가치보다 8.1% 높았다.

● **에너지와 원자재 소모 감소와 투자구조 지속적 개선 효과도 나타났다. 2014년 허베이성 공업에너지 소모는 2.03억톤 표준석탄(标准煤)으로 전년대비 4.1% 감소했다. 이는 12차 5개년계획(2011-15) 기간 중 가장 큰 폭의 감소이다. 단위 공업증가치당 에너지 소모량은 전년대비 8.7% 감소했고, 감소폭은 전년대비 0.6% 커졌다.**

- 투자구조 방면에서 보면, 장비제조업 투자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2014년 투자액은 전년대비 24.7% 증가, 전성(全省)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9.2% 보다 높고, 공업투자액중 점유비중이 전년대비 1.6% 증가했다. 고급신기술산업 투자액도 전년대비 26.5% 증가했고, 증가율은 전년대비 11.1% 증가했다. 민간투자 증가율은 18.1%로 전년대비 1.7% 증가했고 전성(全省) 고정자산투자액의 80.2%를 점했다.

1) 어느 영역의 증가치가 규모 이상 공업비중의 증가치의 20% 이상을 점유할 때 지주산업(支柱产业)이라 부른다. 장기간, 허베이성에서는 오직 강철산업만이 이 기준에 달했었다.

## 중국동향과 진단

‘신상태’ 시대의  
중국경제와  
충남의  
대응과제

- **경제성장속도는 정체되었으나 주민수입은 높은 증가율을 유지했다.** 2014年, 허베이성 주민 1인당 가처분 수입은 1만 6647위안으로 전년대비 9.6% 증가했다. 도시와 농촌 모두 1인당 가처분 증가율이 전성(全省) 경제성장을 보다 높았다.
  - 도시(城镇)주민 1인당 가처분 수입은 2만 4141위안으로 전년대비 1915위안, 8.6% 증가했다.
  - 농촌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1만 186위안으로, 전년대비 998위안, 10.9% 증가했다.
- **재정수입 증가추세는 둔화되었으나, 민생지출 보장은 유지되었다.** 민생지출 사용액이 전체 재정지출총액의 79.3%를 점했다.
  - 2014년 허베이성은 민생투자를 증대시키고, 민생항목을 우선 안배했고, 저소득(低收入) 및 사회적 약자(弱势群体)를 중시하고, 기본공공서비스와 빈곤층 구제업무에 대한 지원강도를 강화했다.
- **취업형세도 기본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취업장려와 창업 등 정책조치를 구체화하면서 곤란군중의 취업 보장을 지원했다.
  - 2014년 전성(全省) 도시(城镇) 신규증가 취업자수는 72.1만인이고, 재취업한 실업인수는 25.9만인, 취업곤란인원이 취업한 경우가 9.7만인으로, 각각 연간목표임무의 103%, 118%, 121%를 달성했다. 도시(城镇)의 등기 실업률은 3.6%로 목표치인 4.5%보다 낮았다.
- **물가수준은 총체적 안정상태를 유지했다.** 2014년, 주민소비가격 지수의 매월 누적증가폭이 1.2%-2.0% 사이로 안정상태를 유지했고, 연간 주민소비가격지수는 1.7% 상승했다.

- 허베이성은 이 같은 경제발전 상태가 이미 ‘신상태(新常态)’에 진입했고,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민생개선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변화가 전성(全省) 미래 경제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허베이 경제의 승급을 위해서 산업의 부단한 특화와 승급(升级), 그리고 현대서비스업 발전의 가속화 추진을 통해 과잉생산능력을 유효하게 소화, 해소하고, 창신(创新) 발전을 가속화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 3. 산둥성의 ‘신상태(新常态)’ 관련 동향

- 산둥성의 ‘신상태’ 수용태도는 허베이성과는 차이가 있다. 즉, 구조조정과 혁신을 통한 질적 승급을 병행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신상태’를 수용하는 공간구조 틀이라며 제시한 ‘두개의 지구, 하나의 도시권, 하나의 도시지대(两区一圈一带)’ 발전전략은 이제까지의 양적 발전을 중시해 온 상태 하의 발전전략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인다.

– ‘두개의 지구(两区)’는 해양경제기지인 산둥반도 남색경제구(蓝色经济区)와 황하삼각주고효율생태경제구(高效生态经济区)를 가리키고, ‘하나의 도시권(一圈)’은 성회도시인 지난(济南) 도시권을 가리키고 ‘하나의 지대(一带)’는 산둥성 남부 도시지대(鲁南城市带)를 가리킨다.

– ‘육상 및 해상 신실크로드(一带一路)’전략실시와 한국과 호주와의 FTA 협정 체결 기회를 적극 활용하면서, 개혁 촉진과 산업 승급(升级) 가속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개방을 확대하고, 국제경쟁과 합작에 참여하는 능력을 부단히 제고한다고 밝히고 있다.

– 자오둥(胶东)반도는 연해지구라는 지리위치우세를 충분히 활용해 대외개방

#### 중국동향과 진단

‘신상태’ 시대의  
중국경제와  
충남의  
대응과제

## 중국동향과 진단

‘신상태’ 시대의  
중국경제와  
충남의  
대응과제

경쟁에서 새로운 비교우위를 창출한다. 산둥성 북부지구는 수도경제권 건설에 적극 참여하고, 남부지구는 장강삼각주 경제발전에 주동적으로 융합 진입하고, 서부지구는 중부의 성급지구들과 상호연계소통을 강화하면서 공동번영을 실현한다.

- **상술한 ‘두개의 지구, 하나의 도시권, 하나의 도시지대(两区一圈一带)’ 발전전략의 주요 내용은, 칭다오(靑島)의 용머리 역할을 강화하고, 성회도시인 지난(濟南)도시권의 파급 및 대동(帶動) 능력을 제고하면서 지난-라이우(萊蕪) 협작구(濟萊協作區)와 산둥성 북부 연해 지구의 발전을 선도하는 선진 중화학공업 건설 가속화를 지원하고, 산둥성 서부지구의 경제발전정책을 구체화한다는 것이다.**

－ 또한, ‘육상 및 해상 신실크로드(一帶一路)’와 ‘베이징-톈진-허베이(京津冀) 협동발전’, ‘장강경제지대(長江經濟帶)’라는 3대 국가전략과 연결하면서, 산둥성과 주변 성,시 지구와 공동발전을 촉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육상 및 해상 신실크로드(一帶一路)’ 연선국가와 기초시설 건설과 상호 연결을 강화하고, 동아시아 해양협력 플랫폼 건설을 가속화 한다.**

－ 주변 성, 자치구, 직할시와의 실사구시적 협작을 진일보 확대하고, 정부, 기업, 사회단체가 공동참여하는 협작기제를 건립한다.

- **한편, ‘보하이(渤海) 곡창지대’공정으로 과학기술공정과 농경지의 질 승급계획을 실시하고, ‘해상 양식창고(糧倉)’건설을 추진 중이다.**

- **이와 동시에 국제화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외자기업, 민영기업 민원처리와 감독업무기제를 완비한다.**

－ 통상관문(口岸) 관리체제를 완비하고, 전자통상관문 건설 추진을 가속화 하고, 무역 편리화 수준을 제고한다.

- 외상투자와 대외투자관리체제를 개혁하고 투자심사비준, 외환관리, 금융 서비스 등 방면에서 장애요인을 제거한다.
- 상하이 자유무역구 시험성과를 학습, 보급하고, 개발구 전형승급(转型升级)을 가속화한다. ‘중한지방경제합작시범구’를 건설하고, 칭다오 자유 무역항구 신청 및 건설 업무를 적극 추진한다.

● **산동반도 남색경제구와 황하삼각주 고효율생태경제구의 현대해양 경제 발전속도가 빠르다. 2013년 산동성 해양생산총액이 2010년에 비해 41.4% 증가했고, 1조 위안을 넘어섰다.**

- 해양장비제조업, 해양화학공업, 해양생물산업, 현대해양어업 및 수산물 정밀가공업, 해양운수물류, 그리고 문화관광업 발전이 중국내 선두 지위를 유지했다.
- 한편, 산동성 최초의 해양산업연맹인 ‘산동반도 남색경제구 해양생물 산업연맹’이 건립되었다.

● **‘4개 지구, 3개 산업공원(4区 3园)’이 조성되고 발전하면서, 칭다오 서해안신구에 항구항운, 선박해양공업, 자동차 부품 등 6대 1000억위안급 산업집군이 집적했다. 또, 18개의 성(省)급 해양 특색 산업단지의 집적경제효과가 증강되었고, 총 2000여개 기업이 집적되었으며, 이 중 해양산업기업이 60%를 점했다.**

- 2013년 산동성 정부공작보고에서 ‘4개 지구, 3개 산업공원(4区 3园)’ 개념을 제출했다. ‘4개 지구(4区)’는 칭다오(青岛) 서해안, 옌타이(烟台) 동부, 웨이팡(潍坊) 빈해(滨海)지구, 웨이하이(威海) 남쪽 바다 등 4개의 해양경제신구를 가리키고, ‘3개 산업공원(3园)’은 칭다오 중더생태원(中德生态园), 르자오(日照) 국제해양도시(国际海洋城), 웨이팡 빈해산업 공원(滨海产业园) 3개의 ‘중외합작단지(中外合作园区)’를 가리킨다.

중국동향과  
진단

‘신상태’ 시대의  
중국경제와  
충남의  
대응과제

## 중국동향과 진단

‘신상태’ 시대의  
중국경제와  
충남의  
대응과제

- 황하삼각주는 이미 전국의 주요 양질의 양식과 면화 생산기지, 특색 과일과 채소의 생산가공수출기지, 그리고 생태양식기지가 되었다. ‘보하이 양식창고(渤海粮仓)’ 공정은 중간 염도 알칼리성 토양 토지에 1만 무(亩)의 밀을 심어 1무당 평균 300kg 이상 생산에 성공했다.

－ 동잉(东营), 빈저우(滨州), 웨이팡 북부(潍北), 라이저우(莱州) 4대 임항 산업구는 이미 투자기업이 1300여 개에 달한다. 동잉항(东营港) 경제 개발구 총투자는 1000억 위안을 초과했고, 생산총액이 2009년부터 4차례 두 배씩 증가했고, 재정수입은 10배로 증가했다.

－ 쇼우광(寿光)에서 생산되는 ‘쇼우광 채소(寿光蔬菜)’, 잔화(沾化)현에서 생산되는 ‘잔화 겨울대추(沾化冬枣)’, 그리고 ‘황하하구 대게(黄河口大闸蟹)’, ‘가오칭 흑소(高青黑牛)’ 등 저명한 중국 브랜드를 육성했고,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산업집중도가 가장 높고, 과학연구 능력이 가장 강한 석유장비제조산업기지를 건립했다.

- ‘성회(省会)도시군 경제권’ 주요 발전동향을 보면, 지난 라이우(济莱) 도시 간 쾌속여객철도 노선이 개통되었고, 열차표 가격을 20위안으로 까지 인하했고, 배차간격을 25분으로 단축시켜서 도시 간 여객 열차의 대중교통화를 초보적으로 실현했다. 두 도시는 각각 2014년 5월과 6월에 두 도시 주민 신분증 수속을 상대 도시에서 시행했고(异地办理), 현재는 각자 자기 도시의 인구 정보시스템을 개조 및 승급시키고 있다. 가까운 시기 내에 두 도시 인구호적의 ‘온라인 이전(网上迁移)’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권역 내 7개 도시에서 주민 일상생활을 ‘하나의 카드로 해결(一卡通)’하게 할 것이다. 지난 -랴오청(济聊) 도시 간 철도와 궤도교통노선 공동운영방안에 대한 타당성연구도 추진 중이다.

- 산둥성 서남부 내지(内地)에 위치한 허저(菏泽)시는 에너지화공, 생물 의약, 기전설비제조, 그리고 농부산물가공 4대 주도산업의 가치사슬의 전후방 연계효과를 연장하고, 산업통제력과 고부가가치를 보유한 결절 지구의 상,하류 연장을 추진중이다. 또한 중심도시, 현정부 소재도시(县城), 소성진(小城镇) 3급 도시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상업무역물류와 문화관광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산업과 도시의 융합발전을 촉진하고, 전성(全省)의 도시화율 격차를 점진적으로 축소시키고, 서비스업 증가치 점유비중을 년차적으로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 산둥성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린이(临沂)시는, 각지의 산업기초와 발전특색에 의거해, 특색산업개발단지를 계획하고 개발구 발전을 위한 중점산업을 확정하고, 산업집군(产业集群)을 조성하고 있다. 이미 기계, 전자, 첨단방직(高端纺织), 신(新)에너지 자동차, 태양에너지 종합이용, 신재료, 생물제약, 문화창의, 식품가공, 신형건축 등 전통과 신흥산업이 공생 공영, 교차발전하는 산업체계가 형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처분 가능한 토지, 자연자원, 공공재정 자원 등은 규모가 비교적 컸고, 지배에 따르는 제한은 비교적 적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지배 가능한 잔여 자원의 수량이 대폭 감소했고, 법치(法治)로 진행되면서 자원이 지배에 따른 제한이 대폭적으로 증가했다.

#### 4. ‘신상태(新常态)’틀 안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변화와 주요 이슈

- 총체적으로 보면, 지방정부간 경쟁모델은 상급에서 설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위아래 층층에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나온 것이다.

#### 중국동향과 진단

‘신상태’ 시대의  
중국경제와  
충남의  
대응과제



-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향하는 궤도전환 과정에서, 중국정부는 자원배치권을 점진적으로 시장에 양보했고, 정부 내에서는 상급정부가 하급정부에 권한을 이임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처분 가능한 토지, 자연자원, 공공 재정자원 등은 규모가 비교적 컸고, 지배에 따르는 제한은 비교적 적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지배 가능한 잔여자원의 수량이 대폭 감소했고, 법치로 진행되면서 자원지배에 따른 제한이 대폭적으로 증가했다.

● **개혁개방 이래 고속성장 과정 중 중국 지방정부의 사업중점은 지방정부간 경쟁이었다. 지방정부 영도(领导)들이 기업의 CEO와 같이 경제업무를 다루면서 지방정부간 경쟁에 주력했다. 이것이 중국 경제 고속성장의 주요 동력이 되었다. 개혁개방 이래 중국지방정부가 한 구체적 경쟁행위는 다음과 같다.**

- 첫째는 투자유치를 위해 뛰었다. 너희 시(市)가 기업과 투자유치를 위해서 특혜조건을 발표하고, 용지가격을 낮추고, 보조금 수준을 높이면, 우리 시는 그보다 더 좋은 조건의 특혜를 발표했고, 그 결과 '밑바닥 경쟁(底线竞争)'이란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 너희 시(市)가 칼러TV 나 자동차 생산시설을 도입 또는 건설하면 우리 시도 들어오고 건설했고, 이는 '중복도입'이란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또 한편에선 "시장에서 기업간 경쟁이 밑바닥 경쟁이 아닌 적이 있었는가?" 라는 질문도 있었고, 항목이 있어야 경제성장과 재정수입도 있고, 일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기업가와 마찬가지로 지방정부관원들도 이성적인 정책결정자이므로, 기업과 자본 유치에 위한 특혜조건 내걸기 경쟁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성적인 선택에 의해 행한다. 만일, 지방정부 간 경쟁이 '바닥 경계선' 아래로 내려가서 문제가 된다면, 그 '바닥 경계'를 명확하게 정해 주는 임무는 상급정부의 몫이 될 것이다.
- 둘째, 상급정부가 주는 자원과 특혜정책을 쟁취하기 위해 상호경쟁했다.

이 과정에서 상급정부와 하급정부간 게임은 다음과 같은 틀 안에서 진행되었다. 본래 1만 위안 예산항목을 지방정부는 2만 위안으로 부풀려 신청한다. 상급정부는 하급의 허위보고를 대강 알고 있으므로 하급 정부가 보고한 예산을 삭감, 조정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실제 지원액은 1만 위안과 큰 차이가 없게 된다. 이 같은 경쟁과정 중에 기초시설이 건설, 완공되므로, 종종 주요 공정의 미완성 중단 상황도 발생했다.

- 셋째, 상호간 모방과 학습이다. 한 지방이 토지를 비축, 정비하고, 연관 기초시설을 건설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투자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건물가를 올리고, 토지를 징수하고 융자하는 방식을 발굴해 내면, 기타 지방정부는 매우 빠르게 모방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과 모델은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 **현재 중국에서는, 향후에 갈수록 시장(市場)이 자원배치 중 결정적인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 이것을 시장에 대한 정부의 행위모델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장점을 발휘하고, 내재된 함의를 새롭게 부여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신상태'하의 전형(转型)과 승급(升级)을 추동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 동시에, 경제발전의 근본 표지(标志)는 1인당 수입의 지속적 증가와 수입분배 차이가 합리적 구간을 유지할 때 그 구간 내에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 **한편, 계층 간, 도농 간, 지역 간 주민소득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 비숙련노동력 임금을 억제하는 행태도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토지, 광산 등 공급탄성이 낮은 자산의 전체 가격체계가 왜곡되어, 한편으로는 발언권이 많지 않은 징수대상자를 억누르고 있다. 예를 들면, 농민,

## 중국동향과 진단

‘신상태’ 시대의  
중국경제와  
충남의  
대응과제

## 중국동향과 진단

‘신상태’ 시대의  
중국경제와  
충남의  
대응과제

광산노동자, 그리고 보통 예금주의 이익 등이다. 반면에 현금동원능력이 있는 자들의 발언권과 축재기회는 계속 증대되고 있다. 예를 들면, 개발상이나 광산주들에게 대출과 투자를 통한 이익획득기회가 증대되고 있다.

- 이제까지의 발전단계에서는 추격경로가 비교적 명확했고, 정책결정의 불확정성이 적었다. 요소성분을 한 단위 억제하면, 국내외 경쟁력을 한 단위 강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비용을 한 단위 억제하면 경쟁력은 오직 반 단위 강화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차별화된 생산품을 개발해 내고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 요구된다.
- 지방정부간 상호모방 방식에도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구체적 산업과 건설항목을 그대로 베껴 쓰는 방식이 감소할 것이고, 지방정부가 추동하는 산업의 전형(转型)과 승급 조직모델도 상호교혼을 주고받으며 보다 활발히 전개될 것이다. 각 지방은 더욱 넓은 기술과 산업 족보 내에서 더욱 차별화하는 경쟁을 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전형 승급(转型升级)의 주요 동력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 선전(深圳)시 소재 기업 ‘광치(光启)’는 이미 세계적으로 선두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선전시 정부가 당초에 일정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광치’를 지원해야 할 것인가 여부를 두고 많은 고민을 했으나, 최종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술 맹아단계에서 정부의 지원이 성공한 사례이다.
- 베이징 중관촌 관리위원회(中关村管委会)는 기술맹아의 싹이 틔운 후에 정부가 개입해 원조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즉, 초창기에는 창신형 항목 창업자가 시장에서 치고받고 경쟁하게 하고, 일단 생명력을 보이면, 중관촌 관리위원회가 주동적으로 다양한 사항들을 지원, 협조했다. 선전

등 중국내 수많은 도시들도 이와 비슷한 유형의 방식을 시행했다.

- 한편, 충칭(重庆)시 정부가 시행한 노트북 컴퓨터 산업체를 조성한 사례는 성숙한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전체 산업체인망의 기업과 자본을 유치한 사례이다.

- 미래에 시장이 자원배치 분야에서 결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나, 이것이 시장증진형 정부행위모델을 철저히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장점을 발휘하고, 새로운 함의를 부여하고, 더욱 유효하게 전형승급(转型升级)을 추동할 것이다.

- 한편, 경제성장 속도에 가중치를 주는 인사고과제도도 지방경쟁을 추동하고 있는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설사 경제방면에서 잘했다고 가점을 많이 받지 못할 수는 있어도, 경제를 망치면 많은 점수가 깎일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적 성과에 가중치를 준다 해도 더 높은 기술함량, 더 깨끗한 경제성장을 구분해서 가중치를 주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다.

- 현재 각 방면 모두 지방정부의 인사고과체계에서 경제성장 지표 가중치를 낮추고, 생태환경 보호와 민생 등 지표의 가중치를 늘리라고 호소하고 있다. 단, 최근 1-2년 기간 중 평가체계에 획기적인 변화는 없었고, 대부분 지방에서 경제성장은 여전히 인사고과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 중국동향과 진단

‘신상태’ 시대의  
중국경제와  
충남의  
대응과제

## 5. ‘신상태’ 중국경제와 충남의 대응전략

- 중국의 ‘신상태’가 한국과 충남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중국 경제와 산업의 ‘신상태’가 대(對)중국 교역 및 수출 의존도가 높은 충남의 경제와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에 충남은

## 중국동향과 진단

‘신상태’ 시대의  
중국경제와  
충남의  
대응과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라는 과제가 제기된다. 즉, 충남의 대(對)중국 대응전략에도 ‘신사고’와 ‘신상태’가 요구된다.**

- ‘충남경제비전 2030’에서도 향후 충남 경제와 산업부문의 가장 큰 위협 요인 중의 하나로 ‘중국과의 경쟁 격화’ 추세를 제기했다. 특히 ‘신상태’ 중국이 산업구조 혁신과 승급을 추진하면서 충남의 주요 대(對)중국 수출품목인 중간재와 부품을 중국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게 될 시점이 더욱 빠른 속도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 그러나, 위기(危機)란 위협(威脅)과 동시에 기회(機會)를 동반하므로, ‘위협’의 뒤에서 기회를 찾는 도전이 요구된다.
- **‘고급신기술산업의 육성’과 경제구조의 고도화와 ‘소득 중심의 성장’을 통해 인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중국정부의 ‘신상태’로의 전환과 도전이 이미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충남의 대(對)중국 전략도 ‘공장’에서 ‘시장’으로, 그리고 ‘요소주도형 투자’에서 ‘충남 특색’의 산업 경쟁력에 기반을 둔 특화전략상품 개발 등 ‘충남형 신상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 **‘충남경제비전2030’에서 제시한 ‘핵심선도사업 목록’ 중 ‘중국 위협’ 뒤에 숨은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검토 가능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우선, 대(對)중국 교류거점 및 연계 교통망 구축, 항만과 다수단 내륙 연계 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 서산 대산항, 당진, 보령, 태안의 항만 시설 확충, 그리고 서산-당진-천안 고속도로 및 서해안 철도 등 신설 및 확충. 서산 해미비행장의 대(對)중국노선 위주의 국제공항 전환 추진 등.
  - 전통 제조업 분야 외에 관광과 농수산업 분야에서도 ‘신상태’와 ‘신사고’가

요구된다. 중국의 부유층과 신흥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충남 특색의 문화관광체험, 생태·휴양관광 인프라 조성, 홍보 마케팅 전략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

- 중국 국내 교류지역의 고급신기술산업 육성에 따른 전·후방 연계산업 부문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
- 중국 부유층과 신중산층을 겨냥한 유기농, 무공해 청정 농수산물의 중국내수시장 개척전략을 충남도와 각 시군의 대(對)중국 교류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적극 활용하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 ※ 참고자료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사회보장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 및 전망”(2015.1.)
2. 인천발전연구원 “중국 신창타이 시기, 지역발전의 재구성”(2015. 4. 3.)
3. 중앙일보. “중국 전인대, 다시 성장을 고민하다”(2015. 3. 6.)
4. 新华社. “推动弓箭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2015. 3. 28.)

#### 중국동향과 진단

‘신상태’ 시대의  
중국경제와  
충남의  
대응과제

# 허베이 - 산둥통신 (河北-山东通讯)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중국연구팀

## 허베이-산둥통신

- 허베이통신[산업 클러스터]—량팡시 혁신창업 플랫폼 구축
- 허베이통신[교통 · 인프라]—징진지 공항클러스터 구축  
—방사형에서 네트워크형으로 교통망 전환
- 산둥통신[산업 클러스터]—칭다오 서해안신구 비준
- 산둥통신[교통 · 인프라]—산둥성 고속철도계획



## ◎ 허베이성 랑팡시(廊坊市), 혁신창업플랫폼 구축에 전력

■ 중국경제의 신창타이(新常态, New Normal)진입과 징진지(京津冀) 일체화 전략의 정책환경 속에서 랑팡시(廊坊市) 과학기술국이 혁신창업 플랫폼(平台) 구축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랑팡시(廊坊市) 과학기술국에 따르면, 중국경제의 ‘신창타이’ 진입에 따른 지역산업구조 고도화에 대한 국가적 수요와 징진지 일체화 전략에 따른 베이징과 톈진의 제조업 생산기능과 연구개발기능의 허베이성으로의 이관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 내 혁신창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과학기술산업단지, 창업인큐베이팅센터, 과학기술금융 플랫폼, 과학기술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 과학기술산업단지 구축

- 시 과학기술국의 주도로 ‘구안신형산업시범구(固安新型产业示范区)’, ‘허베이-랑팡 신형산업시범구(河北廊坊新型产业示范区)’, ‘따창신형산업시범구(大厂新型产业示范区)’를 성급 첨단기술구로 승급시키고자하며, 시 전체의 성급 첨단기술구를 5개까지 늘리고자 한다. 구안(固安) 도시 농업 산업기술구, 용칭(永清) 신태양광 산업기술단지 등을 성급농업 과학기술 산업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 ■ 인큐베이팅 플랫폼

-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육성과 기초과학 연구성과를 상용화 기술로 전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랑팡시 과학기술국은 인재인큐베이팅센터, 위성항법 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팅센터, 칭화대학 중대과학기술프로젝트 중국화 인큐베이팅 기지 등 7개의 시급 인큐베이팅센터를 신규 인준할 계획이며, 이는 허베이성 내 2위 규모로서, 4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하며, 향후 매년 3억 8천만 위안의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 허베이- 산동통신

허베이성  
랑팡시,  
혁신창업  
플랫폼 구축

## 허베이- 산동통신

허베이성  
량팡시,  
혁신 창업  
플랫폼 구축

### ■ 과학기술금융 플랫폼

- 현재까지 시 과학기술국 주도로 량팡시 혁신창업투자공사를 설립하여, 19개 프로젝트를 통해, 5,660만 위안의 투자를 모집했으며, 향후 2억 9천만 위안의 용자를 각 기업에 제공할 예정인데, 이는 과학기술분야 재정투자액의 약 6배에 해당한다.

### ■ 과학기술서비스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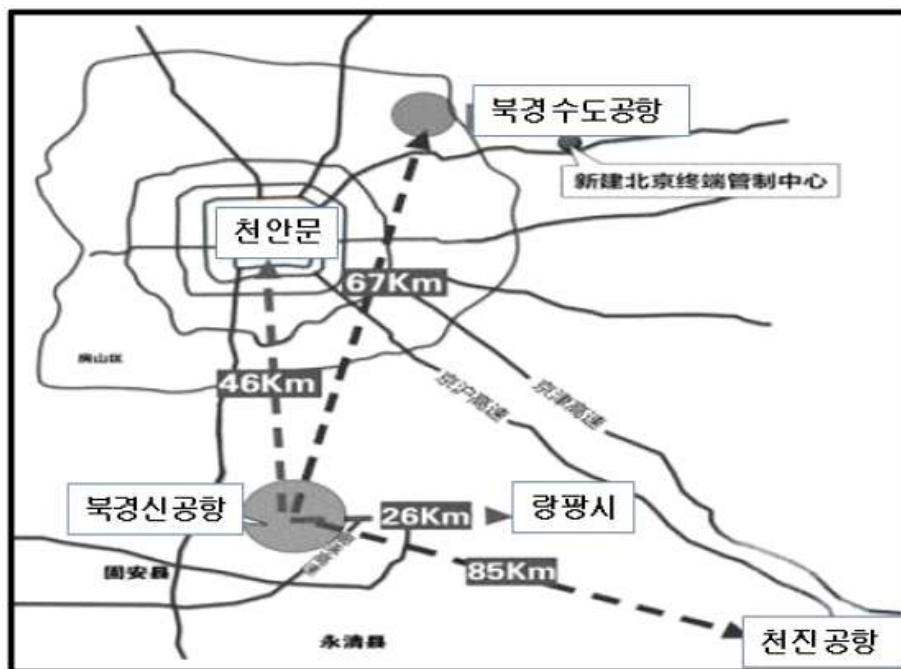
- 룡허(龙河) 과학기술성과 인큐베이팅 종합서비스센터를 설립하여, 지적 재산권 교역, 성과전시, 과학기술 금융, 교류협력 컨설팅, 고가 대형 장비에 대한 대여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 구역 내 벤처창업가에게 종합적, 전방위적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과학기술혁신창업서비스센터, 과학기술지적재산권 교역센터는 이미 운영되고 있다.

- 중국의 산업구조가 범용제품의 대량생산에서 첨단기술제품을 위주로한 다품종 소량생산의 단계로 전환되고 있으며, 성장동력 또한, 요소·투자주도형에서 혁신주도형으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 중국 수도권인 징진지 지역의 경우, 징진지 일체화 전략을 통해 조성된 공간에 베이징 중관촌의 인재를 유치하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역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 징진지(京津冀) 공항 클러스터 조성

■ 7월 1일, 허베이성 교통운수청에 따르면, 베이징 신공항 건설에 90억 위안의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허베이성 내 공항 건설에 5억 위안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베이다이하(北戴河) 공항의 영업과 청더(承德) 공항의 신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 베이징 시 다싱구(大兴区) 위파진(榆垓镇)에 들어서게 되는 베이징 신공항은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직선거리 약 46km, 허베이성 랑팡시(廊坊市) 도심에서 약 26 km, 톈진(天津) 공항과는 85km 직선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9년 연간 이용객 4,500만 명, 2025년에는 연간 이용객 7,200만 명을 목표로 설계되었다.



자료 : 바이두(www.baidu.com)

〈그림 1〉 북경신공항 입지 모식도

## 허베이- 산둥통신

허베이성,  
징진지 공항  
클러스터 조성

## 허베이- 산동통신

허베이성  
징진지 공항  
클러스터 조성

■ 한편, 허베이성은 스자좡(家庄) 공항, 바오딩(保定) 정딩공항, 텐진 공항, 베이징수도공항, 베이징 신공항 등 인근 공항과의 기능 조정을 통해 공항구역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베이징 수도공항은 국제항공허브로 육성되며, 중장거리 국제항공 노선을 더 확충하게 되며, 베이징 신공항은 저가항공과 지역지선항공 위주로 기능을 갖추게 된다.
- 또한, 텐진공항은 국제항공중추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되, 인근 지역 공항과의 환승연계의 편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스자좡 공항은 화물 운송, 항공우편, 저가항공을 위주로 육성한다.

■ 베이징신공항을 중심으로한 공항구역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해, 허베이성과 베이징 신공항을 연결하는 징타이(京台)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으며, 향후, 공항복선, 남출구고속도로, 탕산-랑팡고속도로 또한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다.

- 또한, 베이징 도심과 신공항 간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되는 공항철도는 전체 구간의 절반 이상을 지하로 건설할 예정이며, ‘차오치아오(草桥) 역’에서 베이징 지하철 19호선으로 환승이 가능하며, 수화물 위탁 운송서비스도 가능하다고 한다.

◎ 허베이성, 방사형 교통망에서 네트워크형 교통망으로 전환

■ **지난 7월 16일, 허베이성 교통운수청장은 징진지(京津冀)<sup>2)</sup> 교통일체화 실행계획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베이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방사형 도로교통체계를 다중심 네트워크형 교통체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베이징-톈진-허베이(京津冀) 지구(地区)는 전국에서 고속도로밀도가 가장 높고 교통망이 가장 발달한 지구이지만, 또한 발전의 불균형 정도가 매우 심각한 지구이기도 하다. 허베이성은 ‘징진지’지구 면적의 87%, 인구의 67%를 점하고 있지만, 1인당평균 재정수입은 베이징의 1/4, 톈진의 1/3, 고속도로 밀도는 베이징의 1/2, 톈진의 1/3이다.

■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4중, 4형, 1환 방식’의 허베이성 각 지역 중심의 교통망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연해(沿海), 베이징-상하이(京沪), 베이징-청더(京承), 베이징-광저우(京广)의 4개 노선의 종축의 종합교통망을 갖추며, 친황다오-청더-장자커우(秦承张), 베이징-친황다오(京秦), 베이징-장자커우(京张), 톈진-바오딩(津保), 스자좡-창저우(石沧) 4형 교통네트워크의 주요 골격을 구축할 것이며,
- 2020년까지 허베이성 구역 내에 9000km의 고속도로가 건설될 것이며, 각 고속도로는 모든 현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베이징, 톈진, 스자좡 3개 중심도시 간을 연결하는 3개 고속도로와 베이징과 톈진에 접한 매 현마다 적어도 하나의 고속도로 IC를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허베이-  
산동통신**

허베이성,  
방사형에서  
네트워크형  
교통망으로  
전환

2)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허베이(河北)를 포함하는 중국수도권지역

## 허베이- 산동통신

허베이성,  
방사형에서  
네트워크형  
교통망으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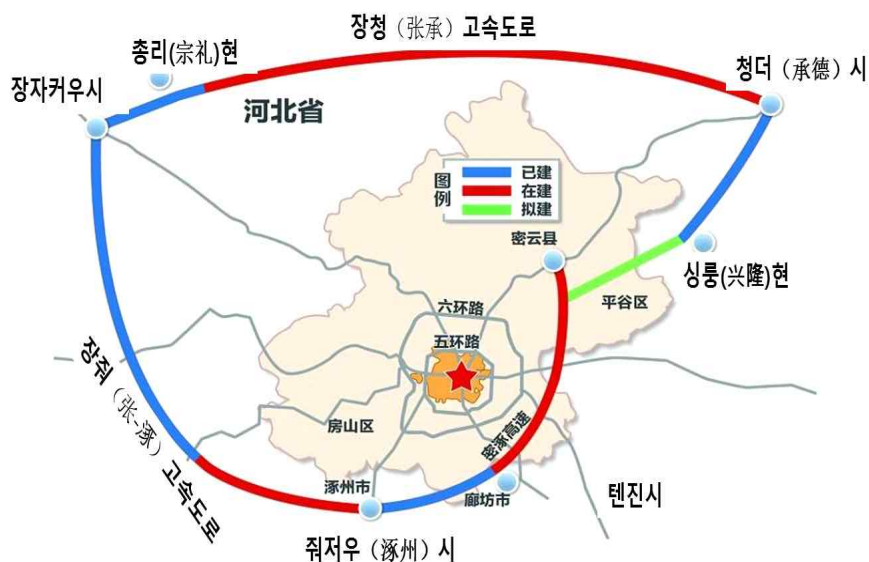
자료 : 바이두([www.baidu.com](http://www.baidu.com))

〈그림 1〉 징진지 종합교통망 개념도

■ 또한, 2015년 내에 허베이성 내 고속도로 총 연장이 6,000km를 돌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허베이성 교통운수청에 따르면, 올해 안에 완공되는 허베이성 내 고속도로는 장자커우(张家口)고속도로 총리-장자커우(宗礼-张家口), 청더(承德)경계구간, 장자커우-청더 고속도로(张-承高速) 장자커우-첵더 구간(张家口-承德段)에서 평산(凤山)구간, 베이징-쿤밍고속도로(京-昆高速) 스자좡·타이향산·베이징 노선의 스자좡 구간, 베이징-홍콩-마카오(京港澳) 고속도로(高速) 한단-라오청 동남구간(邯郸-聊城) 및 상룽-청더 고속도로(隆德高速) 고성(古城)지선을 포함한다.

- 특히, 금년에 착공되는 타이항산 고속도로(太行山高速)의 경우, 베이징과 허베이성의 경계인 장자커우에서 출발해, 핑산(平山), 싱타이(邢台) 등 11개 도시를 거쳐 허베이성과 허난성의 경계까지 이어지는 관광도로로서 구간마다 48개의 4A급 풍경구<sup>3)</sup>를 포함하고 있어, 진출입로가 설치되는 허베이성 각 시·현의 경제성장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 바이두([www.baidu.com](http://www.baidu.com))

〈그림 2〉 베이징 대 외곽 순환 고속도로(北京大外环) 개념도

■ 베이징 대외환 허베이성 구간이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 장자커우-청더(张家口-承德) 고속도로(高速) 건설이 추진되어 장자커우 총리(宗礼)에서 청더-평산 고속도로(承德-凤山高速)구간이 금년 말에 시범적으로 개통된다.
- 한편, 베이징 대 외곽 순환 고속도로(北京大外环)은 장진지 교통일체화 정책의 핵심프로젝트로서 베이징, 톈진과 허베이성을 연결하는

3) 중국의 명승지는 5개 등급으로 나누어 관리되는데, 5A급이 가장 높은 등급이다.

허베이-  
산동통신

허베이성,  
방사형에서  
네트워크형  
교통망으로  
전환



총연장 약 940km의 고속도로로서 이 중 850km가 허베이성을 통과한다.

- 또한, 고속도로 및 각 간선도로의 건설과 더불어, 장진지 각 지역의 농촌도로들에 대한 정비작업이 추진되어, 2020년까지 약 2,000km에 해당하는 농촌도로를 정비·보수할 계획이다.

## ◎ 산둥성 칭다오 서해안 신구(青岛西海岸新区) 비준 획득, 해양개발전략기지로 육성

■ 2014년 6월 9일 국무원이 <국무원의 칭다오 서해안신구 건립 동의에 관한 비준(国务院关于同意设立青岛西海岸新区的批复)>을 발표하면서, 칭다오 서해안 신구(青岛西海岸新区)가 전국에서 9번째로 국가급 신구<sup>4)</sup>로 정식 인준됐다.

- 칭다오 서해안 신구(青岛西海岸新区)는 칭다오시 황다오구(黄岛区) 전체행정구역을 포함하며, 육상 2,096km<sup>2</sup>, 해상 약 5,000km<sup>2</sup>의 규모로서, 향후, 해양관련산업(蓝色经济)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육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 비준에 따르면, 해양기술의 자주적 혁신 역량개발, 해양개발의 전략기지 육성, 민·군융합혁신 시범구, 해양경제국제협력의 선도기지, 육해상 협력발전시범구, 전국해양경제과학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한다.

4) 국가급 신구는 국무원의 직접 관할을 받는 일종의 특구지역으로서, 토지, 금융, 세제, 행정절차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우대조치가 제공된다. 1992년 상하이 푸둥신구(上海浦东新区)의 개발을 시작으로 해서, 2005년 텐진 빈하이신구(天津滨海新区), 충칭 량장신구(重庆两江新区), 저장 저우산군도신구(浙江舟山群岛新区) 등을 비롯해 현재까지 총 14개가 지정되어 있다.

## ■ 칭다오 서해안 신구의 국가급 신구 승격 준비 과정

- 2011년 산둥반도 남색경제구발전계획 비준을 준비할 때, 칭다오(靑島), 옌타이(烟台), 웨이팡(濰坊), 웨이하이(威海)등 중점도시의 행정구획을 조정해서, 칭다오 해안, 웨이팡 해변(濰坊濱海), 웨이하이의 남해(威海南海)를 중심으로 해양경제신구 건설을 계획했다.
- 2012년 칭다오(靑島)시는 ‘칭다오서해안경제신구발전계획’을 발표했는데, 칭다오 서해안신구를 계획하기 위한 공간 범위와 거의 일치하며,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국무원의 비준을 얻어, 황다오(黃島)구와 자오난(膠南)시의 합병을 통해 서해안 신구의 행정계획 체계를 확립했다.
- 2013년 2월 국무원이 서해안 경제신구를 비준했고, 국가발전계획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 ■ 신구건설계획

- 신구계획은 ‘1핵’, ‘양항’, ‘5기능구’로 구분이 되며, 각각 ‘1핵’은 신구 중심구, ‘양항’은 치엔완항(前灣港)과 동자커우항(董家口港)이며, ‘5기능구’는 보세기능확대구(保稅功能拓展區), 국제경제협력구(國際經濟合作區), 동자커우경제구(董家口經濟區), 서해안국제관광구(西海岸國際旅遊度假區), 구전커우서비스보장구(古鎮口服務保障區)로 구분된다.
- 칭다오 서해안 신구는 산둥반도 내 국가급 산업단지 중 가장 큰 규모이며, 산업 기능적으로 자기 완결성을 지니고 있으며, 정부 정책 지원의 집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구 내 총생산이 이미 2,000억 위안을 초과했으며, 칭다오 각 구(區) 중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 칭다오 전체 GDP의 1/4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 허베이- 산둥통신

칭다오  
서해안신구  
비준획득,  
해양개발의  
전략기지로육성

## 허베이- 산동통신

칭다오  
서해안신구  
비준획득,  
해양개발의  
전략기지로육성

- 산업배치 측면에서는 선박제조업, 장비제조업, 해양 엔지니어링, 해양 바이오산업 등 각 부문별 기초산업의 균등한 발달을 추구하며, 보세항구를 통한 대외개방구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향후, 산둥반도 남색경제구의 주요 지역으로 기능하게 될 칭다오(靑島), 웨이팡(濰坊), 르자오(日照)시의 행정구역 일체화 계획을 통해서, 해양산업을 중심으로한 산동성 내 도시 간의 연담화를 계획하고 있다.



자료 : 凤凰网(qd.ifeng.com)

〈그림 1〉 칭다오 서해안신구 공간배치 계획도

### ■ 저우산군도(舟山群岛) 해양경제신구와의 차별성

- 저우산군도(舟山群岛) 신구(新区)는 도서개발과 육해상 연계발전에

중점을 둔 개발전략을 취하고 있지만, 칭다오(靑島)서해안신구(西海岸新区)는 해양산업의 선도적 작용을 통해 육상경제영역의 연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 저우산군도 신구에 비해, 칭다오 서해안신구가 지니고 있는 강점은 해양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수많은 인재가 집적해 있다는 점인데, 중국 해양대학 해양전문학원을 비롯해 20여개의 국가급 과학연구소와 중국 전체의 해양산업 관련 인력의 50%가 칭다오 시에 있기 때문에, 인적 자본 측면에서 커다란 우위를 지닌다.
- 칭다오 서해안 신구는 해양경제가 연안에서 대양으로 확장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산업의 가치사슬이 점차 확장되어, 육상의 산업 발전을 이끄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 단, 중국해양산업의 규모가 비교적 작고, 산업발전단계도 낮아서, 어떻게 지역 내 관련 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것인가가 관건과제가 될 것이다.

■ 2014년 6월 국가급신구 비준 획득 이후, 35건의 개혁조치들이 단행됐다. 칭다오서해안신구는 “개혁이 없으면, 신구도 없다”는 각오로 각종 개혁과 정책적 우대조치를 통해서 신규창업촉진과 투자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기업 구매 토지에 대한 용도규제 면제 : 2014년 말, 칭다오서해안신구에 대해서 ‘일지다용(一地多用)’ 개혁조치가 비준됨에 따라 하나의 토지 위에 다양한 기능을 지닌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고, 과거의 획일적인 토지관리방식이 개편됨에 따라 보다 집약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개체호(个体户)’에 대한 창업 활성화 조치, 즉, 사회투자분야에 대한 사전비준제를 취소하고 사후 신청제로 전환함에 따라, 건설프로젝트 사업공기를 3개월에서 6개월가량 단축했고,

## 허베이- 산둥통신

칭다오  
서해안신구  
비준획득,  
해양개발의  
전략기지로육성

## 허베이- 산동통신

칭다오  
서해안신구  
비준획득,  
해양개발의  
전략기지로육성

종합행정서비스센터를 설립해 창업에 관련된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실제, 1.4만호의 개체호 창업이 있었는데, 이는 전년 동기대비 54% 증가한 수치이다.

- 또한 일련의 개혁조치를 통해 도시관리, 국토, 문화, 해양감찰, 교통, 환경보호의 6대 부문의 행정집행권 및 관련 인력을 ‘종합행정집행국(综合行政执法局)’으로 단일화시켰다.
- 한편, 혁신 관리프로그램을 구축해서, 100만 여 명의 인재 D.B. 및 5,800여 건의 기업 정보 D.B., 사회관리 방면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했다.
- 각종 개발 프로젝트의 집적 효율 추구, 즉, 동아시아 국제컨벤션센터(东亚国际展览中心), 고속철도신기술연구개발센터(高铁新技术研发中心) 등의 500억 위안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들이 실시되고 있으며, 향후, 칭다오를 북방의 국제 수산물교역센터로 만들기 위한 101.7억 위안 규모의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 **중국정부의 21세기 해양실크로드 전략과도 연계되는 산동성의 해양산업(蓝色经济)육성전략은 향후 충남의 조선업, 선박수리업, 해양 마리나 산업 등의 분야와 전략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 산둥성 고속철도, 전국 16개 성시(省市)와 연결

■ **지난(济南) 철도국에 따르면, 올 7월 1일자로 지난철도국이 열차 운행 세부계획을 조정하여, 산둥성에서 전국 16개 성시로, 연결되는 고속철도 노선을 신설했고, 보통열차에 비해 경제적으로 많은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 5월 20일, 지난(济南)-장자제(张家界) 간의 쾌속 관광열차를 시작으로 하여, 산둥성과 전국 각 성시 간의 고속철도 및 쾌속열차 운행이 증편 내지 신설되고 있으며,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표 1>과 같이, 산둥성과 각 성시 간의 고속철도 운행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 **금번, 철도운행계획 변경은 네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1) 고속철도 증편과 운영의 다양화, 2) 쾌속열차의 증차, 3) 성내 열차 운행의 편리성 증대, 4) 일출여행의 편리화 등이다.**

■ **1) 고속철도 증편과 운영의 다양화**

- 가장 눈여겨 볼 부분은 지난서(济南西)역에서 광저우남(广州南) 역 구간 고속철도 노선이 선전북(深圳北)역까지 연장운행됨에 따라, 산둥성에서 선전을 직접 연결하는 고속철도 노선이 되었다는 점이며, 이에 산둥지역에서 홍콩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해 질 전망이다.
- 또한, 황산북(黄山北)역으로 연결되는 고속철도 노선이 증편되어, 황산 관광이 편리해 질 전망이며, 구이저우성(贵州) 성도인 구이양(贵阳)으로도 직접 연결되고, 베이징, 톈진 등과의 고속철도 이용도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허베이-  
산둥통신

산둥성  
고속철도  
전국 16개  
성시와 연결

〈표 1〉 산동성 고속철도 증차 현황

노선	운행열차
지난(济南)-푸저우(福州)	G345/G348
지난서(济南西)-광저우남(广州南)-선전북(深圳北)	G279/G280
칭다오(青岛)-허페이(合肥)-샤먼북(厦门北)	G244/1G242
지난서(济南西)-화이화남(怀化南)-구이양북(贵阳北)	G285/G286
베이징남(北京南)-푸저우(福州)	G27/G302, G301/G28, G303/G304
베이징남(北京南)-샤먼북(厦门北)	G322/G323, G324/G325, G326/G321
베이징남(北京南)-황산북(黄山北)	G351/G352
톈진서(天津西)-푸저우(福州)	G329/G330
베이징남(北京南)-허페이(合肥)-황산북(黄山北)	G265/G270

자료 : 지난시 철도국(www.jntlj.com)

## 허베이- 산동통신

산동성  
고속철도  
전국 16개  
성시와 연결

### ■ 2) 쾌속열차의 증차

- 산동성과 상하이(上海)·항저우(杭州) 지역을 하룻밤에 운행하는 야간 특급 열차 편을 늘리고, 베이징서(北京西)역-푸저우성(福建省) 롱옌(龙岩) 간 열차(K571/K572)노선을 샤먼(厦门)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 ■ 3) 산동성내 열차 운행의 편리성 증대

- 칭다오-룽청(龙城) 간 열차가 8편 증차되고, 기타 성내 철로가 증축되며, 룽청(龙城)-옌타이(烟台) 간 관내 동차(D6098/D6099)가 증차되고, 칭다오(青岛)-룽청(龙城) 구간이 고속열차로 운행되며, 이 중 러시아워 시간에는 6편의 고속열차가 추가로 운행될 예정이다.
- 또한, 지난(济南)-르자오(日照) 간 열차(K8281/K8282)는 특고속열차로 개편되고, 칭다오북(青岛北)-쯔보(淄博) 간 열차, 웨이하이(威海)-쯔보



(淄博) 간 열차, 지난(济南)-동잉(东营) 간 열차가 증차되며, 짜오좡서(枣庄西)-옌타이(烟台) 간 열차의 운행구간이 짜오좡서(枣庄西)에서 칭다오북(青岛北) 역 구간으로 변경되며, 철로 신설을 통한 운행시간 단축이 예상된다.

#### ■ 4) 일출여행의 편리화

- 베이징에서 중국 동해안 지역으로의 고속철도 접근성이 개선되어, 중국 관광산업 성장에 따른 일출여행 수요증대에 부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베이징남(北京南)-룽청(龙城) 간 열차(G4217/G4218), 지난서(济南西)-상하이 홍차오(上海虹桥) 간 열차(G4261/4262), 산둥성 짜오좡(枣庄)-셴양(沈阳) 간 열차(G4266/7G4268), 베이징남(北京南)-옌타이(烟台) 간 열차(G4219/G4220)가 증차된다.

■ 금번, 철도운행계획 개편을 통해, 산둥성내 각 도시와 전국 16개 성시 및 18개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제고되어, 관광객 및 비즈니스 승객들의 편리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허베이-  
산둥통신

산둥성  
고속철도  
전국 16개  
성시와 연결

#### ※ 참고자료

1. 新华网. “廊坊市科技局大力发展创新创业平台”(2015. 6. 10.)
2. 中国经济网 “河北廊坊：产业置换迎来发展春天”(2015. 6. 29.)
3. 新京报 “北京新机场线开始面向公众征求意见”(2015. 6. 06.)
4. 中国新闻网. “河北投资90亿建北京新机场 打造京津冀机场群”(2015. 7. 01.)
5. 河北省人民政府网站, “打造 ‘四纵四横一环’ 交通网”(2015. 7. 16.)
6. 新华社 “青岛西海岸新区获批设立”(2014. 6. 10.)
7. 凤凰网 “国家级青岛西海岸新区获批 看新区 ‘新’ 在何处”(2014. 6. 14.)
8. 济南网 “济铁七一调图直达18大城市 增开至福州贵阳高铁”(2014. 7. 01.)
9. 新华网 “7月增多趟高铁 国内游将更方便”(2014. 7. 04.)

# 제2회 충청중국포럼개최

## 한국은행 김한수 본부장

### ‘뉴노멀 중국경제와 충남경제의 비전’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중국연구팀

◎ ‘뉴노멀 중국경제와 충남경제의 비전’ 강연

- 지난 6월 25일(목), 충남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도 경제통상실, 환황해 프로젝트팀 관계자 및 시 군 관련 공무원, 미래전략연구단 및 산업경제부 연구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한수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장의 ‘뉴노멀 중국경제와 충남경제의 비전’이란 주제의 강연과 참여자들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 최근에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소장을 지낸, 김한수 본부장은 중국의 굴기에 대한 문명사적 해석을 통해, 최근의 GDP 성장률 감소만을 토대로 중국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근시안적 시각이며,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추이를 주시하면서, 중간재 위주의 국내 및 충남 지역의 대중국 무역의 구조를 최종재와 서비스 위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림 1〉 김한수 본부장 강연 사진

忠清中国

论坛

—뉴노멀  
중국경제와  
충남경제의  
비전

- 김한수 본부장은 위안화가 국제무역의 기축통화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현실을 근거로, 슈퍼파워로서의 중국의 굴기는 단기적 현상이 아니며, 현재의 중국경제의 성장을 감소 추세는 산업발전단계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 특히, 소비대국으로의 부상,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산업구조 고도화, 자본 수출국으로의 변화 등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에 때문에, 단순히 성장률 수치만을 근거로 중국경제를 전망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 한편, 수출에서 대중국의존도가 높은 충남의 산업구조와 중국의 변화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중국 경제의 변화에 따른 충남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최종 소비재 위주로의 산업구조 개편, 역사문화자연자원을 활용한 대 중국 관광산업의 육성, 한중해저터널, 항로 개설, 공항 건설 등의 중국과의 교통로 확보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 현재 충남의 산업구조에 비추어 볼 때, 중국 경제의 뉴노멀화 경향이 충남에 단기적으로 손실을 안겨줄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최종 소비재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육성, 중국과 근거리에 위치한 입지적 조건을 활용한 휴양 관광산업의 육성, 교통인프라 개선 및 중국에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 등을 통한 중국 자본의 투자유치 등을 통해 중국의 변화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비용타당성 문제로 인해 한-중 해저터널의 건설이 단기간 내에 추진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중국과 서해안 지역의 항로 다변화, 서산 해미공항의 민항기 취항, 철도 페리의 도입 등 단계적이고 다양화된 방식의 전략적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또한, 미중 간의 국제정세의 균형에 있어서는, 미 국채의 최대 보유국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 차이나와 아메리카의 평화로운 공존기인 ‘차이메리카’ 시대가 지속될 것으로 평가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대륙세력인 중국의 굴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충남연구원 박경철 박사는 일대일로 전략에 따른 국가적 차원에서 서해안권을 거점화할 수 있는 개발 포인트를 서산, 당진, 보령 등의 지역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고, 환황해T.F.팀의 강형규 팀장은 육상 및 해상 신 실크로드(一帶一路)에서 한국이 배제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했다.

－ 이에, 김한수 본부장은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핵심은 전략적 공간에 포함되는 것 그 자체보다 각각의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AIIB에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만 보아도, 우리나라가 배제되었을 수도 있다는 식의 인식은 옳지 않다고 답변했으며, 서해안권의 전략공간의 육성을 위해서는 북부 4개 도시 이외의 지역문화에 기반을 둔 창의적 공간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다수의 참가자에 따르면, 중국의 부상에 대한 ‘충남’의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충청중국포럼이 지속적으로 자주 개최되어, 중국의 주요 동향과 충남의 대응전략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켜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忠清中国

论坛

－뉴노멀  
중국경제와  
충남경제의  
비전



〈그림 2〉 포럼 단체사진

- ◎ 다음 포럼은 8월 26일(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성별·권역별 연구단 김부용 박사께서 “베이징, 텐진, 허베이(京津冀)지구 일체화 추진정책과 시사점(잠정)”이란 주제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 충남연구원 홈페이지([www.cni.re.kr](http://www.cni.re.kr))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

■ 본 발간물에 수록된 내용은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과 외부 필진이 정리, 해석한 것으로서, 충남연구원 및 충남도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문의사항 :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  
([yookwang1234@cni.re.kr](mailto:yookwang1234@cni.re.kr), 041-840-1175)